

'어린이 군산학' 세계에 알린다

국제교육도시연합, 평생학습 우수사례 선정 '진포초 수업 영상' IAEC 홈페이지 게재 예정

군산시의 평생학습 사업인 찾아가는 '어린이 군산학'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됐다.

지난 14일 스페인에 본부를 둔 IAEC(국제교육도시연합)는 군산시의 찾아가는 '어린이 군산학' 사업을 평생학습 우수사례로 선정, IAEC 회원 도시들에 알리기 위해 진포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 영상을 담아갔다.

이날 촬영된 '어린이 군산학' 수업 영상은 IAEC 홈페이지(www.edcities.org)에 게재될 예정이며, 이는 군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린이 군산학'은 군산시가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하는 평생교육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와 인물을 이해하고, 애항심을 길러 미래 군산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사업이다.

2014년 시범실시 후 지난해까지 관내 36개 초등학교(103학급, 5,073명)에서 주제가 있는 군산 이야기 '진포대첩과 조운선', '개항과 수탈의 역사'와 군산 인물이야기 '채만식 작가', '이영춘 박사'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 48개 초등학교(121학급, 3,000명)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주제가 있는 군산 이야기 '송나라 사신 서경이 본 고군산도', '군산의 인물이야기' '채금석 축구선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시와 협약으로 '어린이 군산학'을 총괄하는 (사)아리울 역사문화가 2017년 문화재청 공모사업 문화유산 방문교육 단체로 선정,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군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군산을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42개 초·중학교에서 고(古)·신(新)의 노동철과 고군산군도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린이 군산학'과 Win-Win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고대성 인태양성과정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군산학'을 통해 군산의 역사 문화를 만남으로써 애항심과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 군산학"의 평생학습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전세계

IAEC 회원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군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선진 교육도시와의 교육정보 공유 외에도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군산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IAEC는 현재 37개국, 482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군산시는 2008년 10월에 가입해 2010년 10월에는 군산에서 IAEC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IAEC 아태지역 네트워크 임원도시로 연속 선정돼 활동 중이다.

특히 2014년에는 바르셀로나 IAEC 세계총회 단행집에 '군산평생학습도시'란 특집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군산=장현기자

'여름철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군산시, 9월8일까지 위험요소 사전 차단

군산시는 여름철을 맞아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을 막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9월 8일까지 '여름철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철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산사태, 풍수해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 야영장·유원시설의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특별대책 추진단은 부서장을 단장으로 안전총괄과장 등 총 14개 부서 과장들을 반장으로 구성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8월 중순에는 특별대책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해 향후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에달한 등의 인력을 활용해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특별대책 기간 동안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여름철 폭염, 호우 등의 긴급재난문자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장현기자

무면허 어선 운항 선원 적발

무면허 상태에서 선장의 허락 없이 선박을 운항한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7.9급 새우잡이 어선 A호를 무면허로 운항한 선원 조씨(43세)에 대해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운항한 조 씨의 경우 지난 2015년에 허위로 '승선경력 증명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한 뒤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해경의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그해 면허가 취소됐다.

그 후 어선 선원으로 일하면서 승선 경력을 채워가던 중 다른 선박의 호출을 받고 선장의 허락 없이 18km 가량 배를 몰고 나가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달미를 잡혔다. /군산=장현기자

익산 '함라 한옥체험관'에서 힐링하세요

14일 개관... 숙박동 2동·식당 '함라도문대작'·찻집 '아홉마디풀향기' 등 갖춰

익산의 유서 깊은 마을인 함라에서 한옥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함라 한옥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14일 오후 체험관에서 정찬을 시장과 소병홍 시의장, 김영배 도의원, 시의원, 함라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다.

함라 한옥체험관은 한옥마을체험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 일원에 지난 2013년 착공해 4년 만에 조성됐으며, 함라한옥마을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맡았다.

함라 한옥체험관은 전체 41,000㎡ 규모로 숙박동인 '안채'와 '사랑채'

2동(245.8㎡) 7실과 식당인 '함라도문대작'과 찻집인 '아홉마디풀향기'(100.8㎡) 등을 갖췄다.

함라도문대작은 한옥에서 유배생활을 한 허균의 '요리서'에서 따온 명칭이다. 이곳은 숙박예약 시 이용 가능하며, 재첩국, 전복죽, 갈비찜 등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다. 향교 뒤에 구절초가 재배되고 있어 이를 지은 찻집 '아홉마디풀향기'에서는 그윽한 차를 마시며 한옥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한지전등장·떡 만들기 체

험, 후호놀이, 전통웃놀이, 천연항토 염색, 과일장 만들기 등이 준비됐으며, 연인과 부부를 위한 전통혼례복 체험과 프로포즈 이벤트도 이용할 수 있다. (체험 선택 예약제)

함라한옥마을 협동조합 이암용 대표는 "한옥체험관을 찾은 체험객들은 고향집에 온 것처럼 편히 휴식하고 엄마가 해주는 것 같은 정성스런 식사를 하고 전통돌담길을 산책하며 재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라인들의 마음의 평화와 힘을 주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선유도 여름파출소 개소

군산경찰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인 선유도의 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14일 여름파출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피서객 대상 범죄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여름파출소 운영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경찰 4명, 의무경찰 6명의 경찰력을 상주시켜 성범죄, 절도 등의 휴가철 범죄 예방활동에 주력하며 해양경찰,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장현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연구소장협 현장초청 설명회

지난 14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국내식품기업 연구소장으로 구성된 식품연구소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초청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기관과 식품연구소장협의회 신영섭 회장을 비롯해 연구소장 20여명이 방문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연구소장협의회는 농심, 동서식

품, 풀무원 등 국내 대표 식품사와 한국인삼공사,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협회는 인류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연구를 공유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식품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간 가량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현황, 투자유치활동, 그리고 R&D를 비롯한 강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여러 제안들을 제

시하였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과 핵심사업인 6대 기업지원센터 등 현장을 둘러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신영섭 협의회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초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큰 이해와 도움이 됐다.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을 포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제공을 할 것이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3D프린팅 전문 강사 자격과정 진행

원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수료생 20명 중 17명 자격 취득

원광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대학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3D프린팅 전문 강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 17명이 전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학생들의 경력개발과 취업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화에 협력할 수 있는 3D 전문 강사 육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과정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이후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료생 20명 중 17명이 지난 12일 이론 및 실기시험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생소한 3D설계, 모델링, 3D 후처리, 3D프린팅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는 강하은 학생(경영학부 4학년)은 "평소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디자인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프린팅까지 모든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까지 화면상에서 3D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황은희 교수는 "3D프린팅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3D 관련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의 꿈을 꼭 실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